

# 독해

실전 시험 102~104

정답 및 해설

정답 : ㉠ 1 ㉡ 4 ㉢ 2 ㉣ 2

昔から「使うにはまず使われろ」という言葉がある。これは“人をうまく使うには、自分が先に使われることを経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と、“使う者は使われる者の身になって全てを考えよ”という意味の二つが含まれているようだ。さらに深く探してみると、人を使うことは結果的に人に使われることだ、という意味合いが見えてくる。したがって、人に使われることでよい結果を得た者が、また人を使うにもよい結果を得ることになるうか。

ここで一つ思い出話を。二十年程前のことだったろうか。ある中学の校長A先生が、寄宿舎の窓から生徒が投げ散らかすごみくずを、毎朝ニコニコしながら拾い歩いていたが、とうとうある生徒がそれを見つけて他の生徒全員に話したところ、みんな感動してそれから一切ごみを外へ捨てなくなったという。それを聞いて私はさっそくA先生の真似をすることを思いついた。その頃自分が監督していた寄宿舎が、御多分にもれず(注1)、生徒らが掃除を怠けて不潔そのものだったので、どうにかならないかと考えあぐねて(注2)いたのだった。そういうわけで、Tシャツに短パンという出で立ち(注3)になって、自らトイレや廊下の掃除をして回った。ところが、私の姿を見つけたときこそ、生徒たちも申し合わせた(注4)ように手伝ってくれたが、それもそのときだけで、一向に寄宿舎は雑然とした(注5)姿を変えようとはしなかった。そこで、私はいまさらに自分とA先生との相違を発見して、①自らを恥ずかしく思わざるを得なかったのである。

すなわち、A先生は生徒をわが子のように考え、愛する子どもが散らかしたあとを片付けるくらいの気持ちでごみを拾って歩かれたのであるが、私は形こそ同じであっても、内心は腹を立てつつ、「どうだこれを見る!」といった気持ちだったため、A先生の足元にも及ばなかったのである。

この「人を教導くこと」の難しさが、すなわち「人を使うこと」の難しさである。この根本にあるものは、常に教える人、使う人の誠心誠意の問題であると思われる。

これにはこんな笑い話もある。あるとき他の仕事が忙しくなってきた、私がこの監督の仕事を止めようとしたら、妻が大反対した。あなたは若い人を監督してるつもりかもしれないけど、私は若い人にあなたを監督してもらってるつもりなんだから、他の仕事を止めてもこれだけは続けてください、と来たもんだ。確かに思い当たる節(注6)もあるにはあって、さすがの②私もこれには一本参らされた。

人を使うものは人に使われる、人を監督するものは人に監督される。これはどうやら、間違いのないことのようなのである。

(注1)御多分にもれず：例外ではなく

(注2)考えあぐねる：物事が思い通りに進まなくて、困る。

(注3)出で立ち：ここでは、身なり。服装。

(注4)申し合わせる：あらかじめ話を合わせておく

(注5)雑然：整然としていない様子。

(注6)節：ここでは、そのように思われる点。

<1> 筆者が考える「使うにはまず使われろ」の意味と合っていないものを選びなさい。

1. 人を使うときは、相手に自分を使ってもらってからの方がいい。
2. 人を使うときは、まず相手の立場になって物事を考えよう。
3. 自分では人を使っていると思っていても、それは結局その人が自分を使っていることと同じだ
4. まずは自分が誰かに使われるという経験をすることで、人の扱い方が上手になる

<2>生徒たちが筆者の思い通りにならなかった原因はどこにあるか。

1. 生徒たちが感動するような行動を、筆者がしなかったところにある。
2. 筆者が心の底から生徒たちのことを愛していなかったところにある。
3. 筆者が掃除をしている姿を見せただけで、生徒に直接お願いしなかったところにある。
4. 筆者がA先生の真似事をしただけで、誠心誠意行動しなかったところにある。

<3>筆者はなぜ①自らを恥ずかしく思わざるを得なかったのか

1. 自分は一生懸命掃除をしているのに、生徒たちは一時だけ手伝ってそれが長続きしなかったから。
2. 寄宿舎が不潔なままなのは、自分とA先生の間に雲泥の差があったからだ気づいたから。
3. 生徒たちが自分の姿を見つけて手伝ってくれたにも関わらず、一向に寄宿舎がきれいにならなかったから。
4. Tシャツに短パンといういでたちになって掃除をして回ったことを、生徒たちに見つかってしまったから。

<4>②私もこれには一本参らされたところがあるが、これとは何を指すか。

1. 自分が生徒たちを監督しているつもりになっていると、妻に指摘されたこと
2. 実は自分が生徒たちに監督されていると言われ、考えてみるとそれが凶星だったこと
3. 忙しくなったことを理由に仕事を止めようとしたことを、妻にとがめられたこと
4. 自分は仕事を止めたかったのに、他の仕事はやめてもこれだけは続けると妻に大反対されたこと

<어휘>

思い出話(おもいでばなし) 추억담(추억담) 寄宿舎(きしゆくしゃ) 기숙사(기숙사) ごみくず(ごみくず) 쓰레기(쓰레기) とうとう(とうとう) 드디어(드디어) 監督(かんとく) 감독(감독) 御多分(ごたぶん) にもれず(にもれず) 예외없이(예외없이), 역시나(역시나) 怠ける(なまける) 게으름을(게으름을) 부리다(부리다) 不潔(ふけつ) 불결(불결) 考えあぐねる(かんがえあぐねる) 생각하다(생각하다) 지치다(지치다), 주저하다(주저하다) 出で立ち(いでたち) 출발(출발), 여행을(여행을) 떠남(떠남) 申し合わせる(もうしあわせる) 약속하다(약속하다), 합의하다(합의하다) 一向(いっこう) 전혀(뒤에)(뒤에) ない가(가) 따른다(따른다) 雜然(ざつぜん)とした(とした) 어수선한(어수선한) 内心(ないしん) 내심(내심) 足元(あしもと)にも(에도) 及ばない(およばない) 발(발) 밑에도(밑에도) 못(못) 미친다(미치다) 導く(みちびく) 이끌다(이끌다), 인도하다(인도하다) 誠心誠意(せいしんせいい) 성심성의(성심성의) 思い当たる(おもにあたる) 짚이다(짚이다), 짐작이(짐작이) 가다(가다) 節(ふし) 여기에서는(여기에서는) ‘주목할 만한 점’(주목할 만한 점)의 뜻(뜻) 参る(まいる) 여기에서는(여기에서는) ‘곤란하다’(곤란하다)의 의미(의미)

<해석>

옛날부터 “사용하려면 우선 사용되어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을 잘 사용하려면, 자신이 먼저 사용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의미와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모든 것을 생각해라”라는 두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더 깊이 살펴보면 사람을 쓰는 일은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보인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또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에도 좋은 결과를 얻게 것이되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추억담. 이십년 전의 일이었을까? 어느 중학교의 교장인 A 선생님이 기숙사의 창문에서 학생이 던져 어지러운 쓰레기를 매일 싱글벙글 하며 주으며 견고 있었는데, 마침내 어느 학생이 그것을 보고서는 다른 학생 전원에게 얘기했더니 모두 감동하여, 그 후로 전혀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듣고 나는 즉시 A 선생님 흉내를 내려고 생각을 해 내었다. 그 무렵 자신이 감독하고 있었던 기숙사가, 예외없이, 학생들이 청소를 게을리해서 불결 그 자체였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될까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T 셔츠에 짧은 바지 차림으로 스스로 화장실과 복도 청소를 하며 돌았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야말로, 학생들도 약속한 듯이 도와주었지만, 그것도 그때뿐으로 조금도 기숙사는 어수선한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새삼스럽게 자신과 A 선생님의 차이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A 선생님은 학생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어지럽힌 흔적을 치우는 정도의 기분으로 쓰레기를 주으며 견고 있었는데, 나는 모양이 같아도 내심 화를 내면서 “뭐야, 이것 좀 봐” 라는 기분이었기 때문에 A 선생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사람을 계도하기는 것’의 어려움이 곧 ‘사람을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이 근본에 있는 것은 항상 가르치는 사람, 사용하는 성심성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것에는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다. 어느 때 다른 일이 바빠서 내가 이 감독의 일을 그만두려고 했더니, 처가 반대했다. 당신은 젊은 사람을 감독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젊은 사람이 당신을 감독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일을 그만두어도 이것 만큼은 계속하세요라고 말해 온 것이다. 역시 짝이는 것도 있기도 하고 천하의 나도 이것에는 한방 먹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된다, 다른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독받는다. 이것은 아무래도 틀림없는 것인 듯하다.

<1> 필자가 생각하는 “사용하려면 우선 사용되어라”의 의미와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사람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사용되고 나서인 것이 좋다.
2. 사람을 사용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사물을 생각한다.
3. 자신이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4. 우선은 자신이 누군가에 사용된다는 경험을 함으로써 사람 다루는 방법이 능숙해진다.

<2> 학생들이 필자의 생각대로 되지 못한 원인은 어디 있는가?

1. 학생들이 감동할 만한 행동을 필자가 하지 않았던 것이다.
2. 필자가 마음 속으로부터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3. 필자가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학생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았던 데에 있다.
4. 필자가 A 선생님 흉내를 냈을 뿐 성심성의껏 행동하지 않았던 데에 있다.

<3> 필자는 왜 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가?

1. 나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학생들은 한때만 도와서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기 때문에
2. 기숙사가 불결한 채로 있는 것은, 자신과 A 선생님 사이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3. 학생들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숙사가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4. T 셔츠에 반바지라는 차림으로 청소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들켰기 때문에

<4> ②나도 이것에는 한방 먹었다에서 이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 자신이 학생들을 감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인에게 지적을 받았다는 것
2. 실은 자신이 학생들에게 감독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것이 정곡을 찌른 말이었던 것
3. 바빠진 것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려는 것을 부인에게 추궁당했다는 것
4. 자신은 일을 그만두고 싶었는데 다른 일은 그만두어도 이것만은 계속하라고 부인에게 반대를 받았다는 것

정답 : ㉠ 4 ㉡ 4 ㉢ 3 ㉣ 1

いつも一色だった。子供の頃、私が見た夢はなぜか単色だった。

七歳の頃、黄色い黄色い、輝くようなひまわりの夢を見て—お花畑にどこまでもどこまでも続くひまわりに、それはそれは眩しくて、眩しい太陽が昇っていく、という元気になるような夢—朝起きて私の頭から離れなかった。黄色の色。その当時から、夢はいつも色つきだったような気がする。

その前は、たぶん印象的な部分だけに色がついていた。ワンシーンだけとか、くつが赤かったとか。そのうち全体に色が行きわたり、今の夢はフルカラー。現実の世界でも色を自分の体にとりいれて意識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も、あの、ひまわりの夢を見た頃からだろう。

友だちが「子供の時、自分が見た色と他人が見た色が同じなのか、確認できなくて不安な時があった」と言った。

「自分で見ている『青』は、友だちの見ている『青』とは違うかもしれない。同じ『青』と呼ばれている言葉だけど、証明なんてできないし。他人の体と入れ替わって（注1）、その人の目になって同じものを見て、同じだよ、というようなことでもできない限り①無理じゃないかな」

たとえば、誰かと二人でひまわりを見ていたとしても。そのひまわりが、胸をしめつけるようなきっぱりとした黄色で、青い空をバックに、何年たっても忘れられないほどの色に見えたとしても。隣にいる人には、そんなふうな色には映らないかもしれない。

友達にとっては、すぐに頭から離れてしまう色なのかもしれないのだから。同じ色のはずなのに、同じ色ではない②不思議。

「色が同じなのか不安だ」と——そう話した友人は、色覚異常があったけど、驚くほどきれいで、鮮やかな絵を描いた。見る人に「きれいだね、きれいだね」と言われていた。

きっと、目だけで見ているのではないと思う。

同じ色でも、見る人や、時期によって、さまざまな変化をする。空気のようにあるのが当たり前で、見えるけど説明ができないもの。人は、自分の色を、自分の思うとおりに見て生きる。

子供の時に見た祖母のセーターの毛糸の色。母がよくかぶっていた白の帽子。秋の運動場の地面。放課後の校舎に重なる影の色。家に遅く帰って叱られた日の真っ赤な夕日。昨日の青い空。近所の家の犬小屋の黄色いペンキ。みんな自分だけの色。

その時、何をしていたか、なんて忘れても、見た目や感じた色だけは、いつまでも記憶に残る。

その時の気持ちと思い出と匂い。この世界に、色があってうれしい。

（注1）入れ替わる：他のものと交代する。

<1> 筆者はどうして①無理だと思ったか。

1. 同じ名前の色でも、その時の気分や感情で色が変わるため
2. 色にはその人の思い出が反映されると筆者が考えているため
3. 色の印象が強くなければ、色を記憶できる時間に限界があるため
4. 同じものを見たとしても、人によって目に映る色が違うため

<2> 筆者が考える、頭の中からすぐ離れてしまう色とはどんな色のことか。

1. 子供のころに見たものの色
2. あまり鮮やかでない色
3. モノクロームのような一色
4. 心を揺さぶらない色

<3> 筆者が②不思議に思ったのはなぜか。

1. 友人には色覚異常が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鮮やかな絵を描いたから
2. 子供の頃、朝起きて夢の中で見た色が頭から離れなかったから
3. たとえ同じ色であっても、自分の思う通りに見えているから
4. 同じものを見て、人によって記憶できる時間に違いがあるから

<4> この文章から分かる「色」はどんなものか。

1. 昔の記憶がなくなっても、色から感じた記憶はずっと残るもの
2. 色は視覚的、感覚的、聴覚的にもとらえることができる実に不思議なもの
3. 昔の記憶が曖昧で、思い出せなくても色を見れば当時の思い出が蘇るもの
4. 色彩感覚は気分によって左右されるから、色がどう見えるかでその人の心理状況がわかるもの

<어휘>

一色 <sup>いっしょく</sup> 일색 <sup>たんしよく</sup> 單色 단색 <sup>かがや</sup> 輝く 빛나다 ひまわり 해바라기 <sup>はなばた</sup> 花畑 <sup>まぶ</sup> 꽃밭 眩しい 눈부시다  
<sup>はな</sup> 離れる <sup>はな</sup> 떠나다, <sup>키いろ</sup> 멀어지다 黃色 노란색 <sup>いんしやうてき</sup> 印象的な 인상적인 <sup>けいと</sup> ワンシーン 한 장면  
フルカラー 풀 컬러, <sup>い</sup> 총천연색 <sup>か</sup> 入れ替わる 교체되다 <sup>むね</sup> 胸をしめつける 가슴 아프다, 불쌍하다  
きっぱりとした 단호한 <sup>うつる</sup> 映る <sup>ふしぎ</sup> 비치다 不思議な 이상한, 신기한 <sup>しきかくいじよう</sup> 色覚異常 색각 이상 毛糸  
털실 <sup>じめん</sup> 地面 지면(땅바닥) <sup>ほうかご</sup> 放課後 방과 후 <sup>こうしや</sup> 校舎 교사 <sup>かさ</sup> 重なる 겹치다, 중복되다 <sup>かげ</sup> 影  
그림자 <sup>いぬこや</sup> 犬小屋 개 집 <sup>ペンキ</sup> 페인트 <sup>きおく</sup> 기억 기억 <sup>にお</sup> 匂い 냄새

<해석>

언제나 단색이었다. 어릴 적 내가 꾸 꿈은 왠지 단색이었다.

일곱살 때 노랑고 노란 빛나는 해바라기 꿈을 꾸고 — 꽃밭에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해바라기에, 정말이지 눈부시고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는 그러한 힘이 나는 듯한 꿈 —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노란 색. 그 당시부터 꿈은 늘 색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전에는 아마도 인상적인 부분에 만 색이 붙어 있었다. 한 장면만이라든가, 신발이 붉었다든가. 머지않아 전체에 색이 퍼져, 지금의 꿈은 풀 컬러. 현실 세계에서든 색을 자신의 몸에 적용하고 의식하게 된 것도 그 해바라기의 꿈을 꾸었을 무렵부터일 것이다.

친구가 “어렸을 적, 자신이 보는 색과 남이 본 색상이 같은지 확인할 수 없어서 불안한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기가 보고 있는 ‘파랑’은 친구가 보고 있는 ‘파랑’과는 다를지도 모른다. 같은 ‘파랑’으로 불리는 말이지만 증명 같은 건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몸과 맞바꿔서, 그 사람의 눈이 되어 같은 것을 보고, 같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못하는 한 무리가 아닐까?”

예컨대 누군가와 둘이서 해바라기를 보고 있었다고 해도. 그 해바라기가 가슴을 옥죄는 선명한 노란색이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몇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정도의 색으로 보였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식의 색으로는 비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친구에게 있어서는 바로 머리속으로부터 떠나버린 색일지도 모르니까. 같은 색인데도 같은 색이 아닌 신기함.

“색깔이 같은 것인지 불안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친구는 색각이상인이 있었지만,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 선명한 그림을 그렸다. 보는 사람에게 “아름다워, 아름다워”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꼭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같은 색이라도 보는 사람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한다. 공기처럼 있는 것이 당연하고, 보이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것. 사람은 자신의 색을 자신의 생각대로 보며 살아간다.

아이 때 보았던 할머니의 스웨터의 털실의 색. 어머니가 자주 쓰고 있었던 흰색의 모자. 가을 운동장의 지면, 방과후 교사에 겹쳐지는 그림자의 색. 집에 늦게 들어가서 꾸중을 들은 날의 시뻘건 저녁해. 어제의 푸른 하늘. 이웃집 개집의 노란색 페인트. 모두 자기만의 색.

그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같은 것은 잊어도 모양이나 느낀 색 만큼은 언제까지 기억에 남는다.

그 때의 마음과 추억과 냄새. 이 세계에 색깔이 있어 기쁘다.

<1> 필자는 왜 ①무리라고 생각한 것인가?

1. 같은 이름의 색이어도,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색이 바뀌기 때문에
2. 색에는 그 사람의 추억이 반영된다고 필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3. 색깔의 인상이 강하지 않으면 색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 같은 것을 본다고 해도 사람마다 눈에 비치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2> 필자가 생각하는 머리 속에서 바로 떠나버리는 색은 어떠한 색인가?

1. 어린 시절에 본 것의 색
2. 별로 선명하지 않은 색
3. 모노크롬의 같은 단색
4. 마음을 흔들지 않는 색

<3> 필자가 ②신기하다고 생각한 것은 왜인가?

1. 친구에게 색각이상인 있는데도 생생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2. 어릴 적 아침에 일어나서도 꿈 속에서 본 색깔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3. 비록 같은 색깔일지라도 자신이 생각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4. 같은 것을 봐도 사람에 따라서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4>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색’이란 어떠한 것인가?

1. 옛 기억이 없어져도 색에서 느낀 기억은 계속 남는다는 것
2. 색은 시각적 감각적, 청각적으로도 파악할 수 참으로 신기한 것
3. 옛 기억이 애매해서, 생각나지 않아도 색을 보면 당시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4. 색채감각은 기분에 좌우되기 때문에, 색이 어떻게 보이는가로 그 사람의 심리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

정답 : ① 4 ② 3 ③ 2 ④ 3

私は姿かたちを変えてゆくものが好きだ。変化が好きだ。今あるものがどんどん古くなっていき、新しいものが出てくる話を聞くとワクワクする。それは「知能」という見えないものを追求しているからかもしれない。知能というものに形はないし、触ることもできない。様々な環境の中でそれぞれに合った機能が働くシステムであって、その曖昧な見え<sup>あいまい</sup>ない相互作用こそが知能である。

この時代、たくさんのものが変わっていくが、それは目で認識している「もの」にとらわれているからだ。何かが消え、何かが生まれるということと、①それらが提供している価値が高まり、生産性が向上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矛盾しない。人が生まれ、そして死ぬということと、人間社会がよりよい社会になっていくということは矛盾しない。目に見えるものが変わっていくことは、つまり目に見える存在理由と目に見えない存在理由が分離し、違う形態として再構築さ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もある。

インターネットが情報流通における革命を起こし、様々なところに情報が流れるようになった。従来は、情報の流れと組織が一つになって構築されていたが、それが引き離された瞬間に、組織と関係ない情報の流れが生まれ、新たな付加価値を生んだ。情報を伝えるのは必ずしも、母から子へ、教師から学生へ、マスコミから大衆へという決められた経路でなくてよかったのだ。

人工知能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変化は、「知能」という環境から学習し、予測し、そして変化に従従するような仕組みが、これまた人間やその組織と切り離さ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いままでは組織の階層を上げて組織としての判断を下していた。個人が生活の中で判断することも、自分の身体はひとつであるから限界があった。それが分散され、必要なところに必要な程度に実行されるようになるのである。こうした学習や判断が今、いかに社会システムから切り離せない形で埋め込まれているか。それを考えると、学習や判断を独立なものとしてとらえ、それを自由に配置する価値は、はてしなく(注1)大き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人工知能が人間を征服するといった滑稽な(注2)話ではなく、社会システムの中で人間に付随して(注3)組み込まれていた学習や判断を、世界中の必要なところにそれぞれに設置できることで、よりよい社会システムをつくることができる。それこそが、人工知能が持つ今後の大きな発展の可能性ではないだろうか。それは、「特徴表現学習」が実現され、ついに人工知能の学習において、ほとんど人間の手を借りなくてよい段階に技術的に差しかかった今だからこそ、②議論できることなのだ。

(注1) はてしない：限りがない

(注2) 滑稽：おかしかったり、ばかばかしかったりすること。

(注3) 付随：従属的な関係にあること。

<1> 次の「知能」について書かれている文の中で正しいものはどれか。

1. 特定の環境の中で機能を発揮するもの
2. 触ることのできない曖昧なシステム
3. 人間社会において相互作用しているもの
4. 形に、目で認識できないもの

<2> ①それが指しているものと一番近いものを選べ

1. 変化と不変
2. 生と死
3. 衰退と発展
4. 知能と機能



<3> 筆者の考えとして、②議論できることとは何か。

1. 人工知能によって、人間が構築してきた社会システムが混乱におちいる可能性について
2. 人工知能によって、社会システムの中に学習や判断を組み込む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  
いう可能性について
3. 人工知能によって、学習や判断を大きく発展させることができる可能性について
4. 人工知能によって、ほとんどの人間の手を借りなくても学習ができるようになる可能性について

<4> この文章中で筆者が述べていることはどれか。

1. 人工知能が組織と情報を切り離し、私たちの住む社会はさらによいものになっていく。
2. これから人工知能が人間社会において、どのように役に立って行くのかを議論すべきだ。
3. 人工知能によって変化が生まれ、価値が生まれ、必要なところに必要なものが分散される。
4. 人工知能が人間を征服することはなく、これからは人間が人工知能を支配するだろう。

<어휘>

すがた 姿 かたち 모양과 형태, 외관 ワクワク 두근두근 ちのう 知能 지능 ついきゅう 追求 추구 かたち 形 형태  
はたらく 働く 일하다, 작용하다 あいまい 曖昧な 애매한 そうごさよう 相互作用 상호작용 にんしき 認識 인식 とらわれる 사로잡  
히다 価値 가치 せいさんせい 生産性 생산성 こうじょう 向上 향상 むじゅん 矛盾 모순 ぶんり 分離 분리 けいたい 形態 형태 さいこうちく 再構築  
재구축 じょうほう 情報 정보 りゅうつう 流通 유통 かくめい 혁명 혁명 ひきはな 引き離す 갈라놓다 しゅんかん 瞬間 순간 そしき 組織 조직  
あら 新たな 새로운 つか 付加 가치 부가 가치 たいしゅう 大衆 대중 けいろ 経路 경로 つかいしょう 追従 추종 はんだん 判断 판단  
ぶんさん 分散 분산 うめこむ 埋め込む 내장하다, 안에 넣다 どりつ 독립 독립 せいふく 征服 정복 ことけい 滑稽な 우스꽝스러운  
ふずい 付随する 따르다 組み込む 끼우다, 집어넣다 とくちょう 特徴 특징 じつげん 실현 실현 ついに 드디어,  
마침내 ぎろん 議論 논의

<해석>

나는 모습이나 형태를 바꾸어 가는 것을 좋아한다. 변화를 좋아한다. 지금 있는 것이 점점 낡은 것이 되어가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두근거린다. 그것은 ‘지능’ 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지능이라는 것에 형태는 없으며 만질 수도 없다. 다양한 환경에서 각각에 맞는 기능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며, 그 애매한 보이지 않는 상호 작용이야말로 지능이다.

이 시대에서는 많은 것이 바뀌어 가지만, 그것은 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사라지고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과 ① 그것들이 제공하는 가치가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사람이 생기고 죽는다는 것과 인간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해 간다는 것은, 즉, 눈에 보이는 존재 이유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유가 분리되면서 다른 형태로 다시 구축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인터넷이 정보 유통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여러곳에 정보가 흐르게 되었다. 종래에는 정보의 흐름과 조직이 하나로 되어 구축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분리된 순간, 조직과 관계없이 정보의 흐름이 생겨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았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반드시 어머니로부터 아이에게,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언론으로부터 대중에게라는

정해진 경로가 아니라서 좋았다.

인공 지능에 의해서 창출되는 변화는 ‘지능’이라는 환경에서 학습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변화에 추종하는 듯한 구조가, 지금까지 인간이나 그 조직과 분리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조직의 계층을 올라가 조직으로서의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개인이 생활 속에서 판단하는 것도 자신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것이 분산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정도로 실행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이나 판단이 지금 어떻게 사회 시스템에서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녹아들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학습이나 판단을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가치는 끝없이 커다란 것은 아닐까?

인공 지능이 인간을 정복한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인간에 부수적으로 편입되어있던 학습이나 판단을 전세계의 필요한 곳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좋은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인공 지능이 가진 앞으로의 커다란 발전 가능성은 아닐까? 그것은 ‘특징표현학습’이 실현되어, 마침내 인공지능 학습에서 거의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기술적으로 진입한 지금이야말로 ②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1> 다음의 ‘지능’에 대해서 쓰여진 글 속에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특정의 환경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
2. 만질 수 없는 애매한 시스템
3. 인간사회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
4. 형태에 관계모양이 모르고, 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2> ①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라

1. 변화와 불변
2. 삶과 죽음
3. 쇠퇴와 발전
4. 지능과 기능

<3> 필자의 생각으로서, ②논의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1. 인공 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구축해 온 사회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2. 인공 지능에 의해서, 사회 시스템 안에 학습이나 판단을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3. 인공 지능에 의해서, 학습이나 판단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4. 인공 지능에 의해서, 대부분의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4> 이 글 중에서 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인공 지능이 조직과 정보를 분리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좋은 것으로 되어 간다.
2. 이제부터 인공 지능이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갈지를 논의해야 한다.
3. 인공 지능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분산된다.
4. 인공 지능이 인간을 정복하지 않고 이제는 인간이 인공 지능을 지배할 것이다.